

기아차 신형 K5 시승기

# 강력 엔진 착한 연비 “욕심나네~”



27일 담양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기아차의 신형 K5가 달리고 있다.

### 1.7ℓ 디젤, 놀랄만큼 정속·탄탄한 주행감 고품격 내·외장 디자인 눈길 사로잡아 운전 편의성 높고 가속·브레이크도 만족

‘2개의 얼굴, 5가지 심장.’ 국내 완성차 업계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내놓은 최초의 컨셉트다. 기아자동차의 신형 K5는 2.0ℓ 배기량의 휘발유 엔진과 1.7 경유, 1.6 터보, 2.0 터보, 2.0 LPG 등 5개 엔진 라인업에 서로 다른 수요를 겨냥해 MX(모던 익스트림), SX(스포티 익스트림) 두 가지의 디자인을 갖췄다. ‘디자인으로 먹여줬던’ 전작에 이어 K5는 같은 차급에서 디자인만큼은 내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출시 열흘여가 지난 27일 신형 K5를 시승했다. 시승코스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출발, 순창 강천사를 돌아오는 왕복 96km 거리다. 기아가 탑재한 차량은 MX DSL 1.7 디젤 노블레스 모델. 세계적인 다우사이징 추세에 맞춰 중형차급에 1.7 경유엔진이 탑재됐다. 7단 DCT(터블 클러치 트랜스미션)를 적용한 이 엔진은 유로 6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복합연비 16.8km/ℓ로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달성했다. 동력성능 역시 최고출력 141마력(ps), 최대

토크 34.7kg·m로 비슷한 차급의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췄다.

고급 수입차에서나 보던 진한 갈색(플루토 브라운)의 외장이 먼저 눈을 사로잡았다. 대형차 못지 않은 품격이 느껴졌다. 전작을 이어받았지만 외장 디자인이 훨씬 세련돼 보였다. 전면부부터 후면부까지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된 측면과 육각형 모양의 LED 안개등, 헤드램프 밑으로 보이는 에어커튼까지 직선의 단순함과 절제가 살아있었다.

본격적인 시승을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시트에 앉자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새로웠다. 다경도시트인데, 시트 부위별로 경도가 달라 패드는 폭신한 반면, 등받이는 딱딱했다.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구석

구석에서 느껴졌다. 시동버튼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요즘 말로 ‘고급져’ 보였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1세대 K5와 크게 달라졌다. 공조기가 센터페시아 밑으로 내려온 대신 개방감이 훨씬 좋아졌다. 조작 편의성도 높아져, 모든 작동 버튼이 운전자의 손과 가장 가깝게 자리 잡았다. 동승한 이의 “비슷한 차급의 수입차보다 내장 품질이 훨씬 좋다”는 말이 쉽게 수긍됐다.

시동을 걸고,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자 경유 엔진 특유의 아이들링(떨림)이 느껴졌다. 초반엔 차체가 묵직했다. 브레이크 페달도 무거웠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경쾌하게 속도를 올렸다. 시내에선 ‘에코’(ECO) 모드로 주행했다. 점차 시 엔진을 끄는 오토스탑 기능도 만족스러웠다. 트립 컴퓨터를 보니 시내주행 연비는 12.2

km/ℓ.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신차인데다 시내주행임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수치다. 담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오르자마자 페달에 힘을 줬다. 스포츠모드로 버튼을 눌렀다. 약간 오르막이었지만 엔진은 3000RPM 근처에서 폭발적으로 힘을 쏟아냈다. 순식간에 속도계가 시속 160km까지 상승했다. 차선에 차가 없는 틈을 타 급브레이킹을 시도했는데 밀림 현상 없이 속도를 줄여나갔다. 재가속 때에도 민첩함은 변함없었다. 동승자들이 주행 안정성에 감탄한 듯 “오~”라고 작게 말했는데,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들렸다. 정속함은 물론 소음 스트레시 역시 크게 개선된 듯 했다.

담양읍의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잠시 K5의 사진을 찍은 뒤 강천사로 달렸다. 담양

에서 순창으로 이어지는 길은 현재 공사 진행중이다. 길 곳곳에 코너가 빈번했다. 넓어진 전폭 덕분에 코너에서 한층 안정감이 느껴졌다. 스티어링 휠은 원하는 대로 재빠른 반응을 보였고, 쉽게 코너를 돌아나갔다. 강천사에 도착해 다시 평균 연비를 살펴보니 15.3km/ℓ였다. 달리는 동안 과속과 급감속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충분한 연비다. 엔진 다운사이징과 7단 DCT적용이 확실한 연비 개선을 보장한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즐거운 차’라는 표현이 겹겹이 겹겹이 높아진 완성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기아차의 신형 K5는 디자인과 주행성능, 연비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국산 중형 세단의 해답이 될 만하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호남, 기능직 인력 부족... 일자리 불균형 심화

### 고학력화로 미스매치 지수 5년전보다 6.7%P 상승

호남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대학 정원 증가에 따른 고학력화 현상으로 기능직 인력 공급이 부족한 구인 우위의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지역협력실의 김영근 과장과 김민정 조사역은 28일 낸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처럼 분석했다.

2010~2014년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평균현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권역에서 직종별 미스매치가 심화했다.

충청권은 미스매치 지수(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른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직자 비중)가 3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27.8%), 대구·경북지방인 대경권(26.6%) 순이었다. 2008~2009년 대비 2010~2014년의 미스매치 변동을 보면 대경권(+11.0%포인트)의 미스매치 지수 변화가 가장 컸고, 호남권(+6.7%포인트), 동남권(+5.4%포인트) 순으로 지수 상승폭이 컸다.

반면, 수도권 미스매치 지수가 0.8%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률이 전국 평균(+5.1%포인트)을 크게 밑돌았다.

호남권의 경우 관리·전문·사무직에서 구직자 우위의 미스매치가 더 심화(1.4%포인트→3.4%포인트)됐고, 제주권은 관광산업 호조로 서비스·판매직의 구직자

인력 공급 미스매치 현황



우위 미스매치가 다소 완화(5.3%포인트→4.7%포인트)됐다.

김 과장은 “기능직 구인수요는 늘고 있으나 중소 제조업 중심으로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 등으로 구직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책당국에서는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우산구역 재개발 시공사 GS건설·금호산업 선정

2500가구 규모의 광주 북구 우산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GS건설과 금호산업 건설사업부(금호건설)가 선정됐다.

GS건설은 지난 25일 열린 우산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수주금액은 총 4649억원이며 GS건설 수주분은 2557억원, 금호건설 수주분은 2092억원이다.

우산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홍주)은 앞서 지난 3일 시공사 입찰을 열었으며 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과 서희건설이 응찰한 바 있다. 우산구역은 북구 동신고 맞은편 우산동 470번지 일대로, 면적은 15만4529㎡다. 2008년 구역지정 고시 당시 2050가구가 인가를 받았지만, 정비구역변경신청을 통해서 2500가구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9.10 (+0.29)
-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3)
- ▼ 코스닥 745.24 (-5.80)
- ▼ 환율 (USD) 1164.90원 (-2.10)

## 세일글

### “중소기업 건강진단·경영지도 역점”

#### 이태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장

“지역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건강진단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부임한 이태연(53) 전 전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력사업인 건강진단 및 경영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

해 경영지원실 노무담당부장과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장, 경영지원실 총무팀장 등을 역임했다. 평소 대내외 업무 추진력과 진화력이 뛰어나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안제작)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가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층 70m 허니문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수(0) 대신프리모 3대

대산프리모가발